

“강우 연기하며 저 자신도 위로 받았죠”

MBC에브리원 ‘연애는 귀찮지만...’ 출연 지현우
“‘올미다’ 팬 짱 가득. 이전 고민 깊은 17년차 직장인
김소은과 잘 맞아...눈빛만 봐도 뭘 하는지 알아”

“이 작품을 하게 된 이유가 나오는 모든 캐릭터가 주인공 같은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갈수록 제 본량은 적어도도 좋았어요.”

MBC에브리원 드라마 ‘연애는 귀찮지만 외로운 건 싫어!’에서 정신과 의사 차강우 역을 연기했던 배우 지현우(36)는 작품의 결말에 대해 만족감을 드러냈다.

최근 성동구 성수동에서 만난 그는 “강우를 연기하면서 상대방을 위로하는 방법을 배웠다”며 “그 과정에서 저도 위로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평소 고민이나 아픔을 걸로 잘 드러내지 않는 성격 탓에 강우의 대사를 자기 자신에게 던지면서 위로를 받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기억에 남는 대사로는 ‘누가 뭐래도 내가 힘들면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눈치 보지 말고 힘들면 힘들다고 딱딱 티 내세요’를 꼽았다. 강우가 우울증 환자를 상담하며 했던 대사다.

2003년 KBS 공채 탤런트로 선발돼 올해로 데뷔 17년 차를 맞이한 지현우는 “이제는 후배가 아닌 선배로서 활영하게 돼 부담이 뒤따르는 것 같다”고 털어놨다.

“이번 작품에 들어가면서 같이 나오는 후배 친구들이 편안하게 연기할 수 있도록 잘 챙겨줘야겠다. 현장 분위기를 잘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컸어요. 촬영에 들어가니 후배들이 너무 예쁘고 착하고 그래서 흐트러진 마음으로 즐겁게 촬영했죠.”

함께 연기했던 배우 김소은과의 호흡에 대해서는 “눈빛만 봐도 뭘 하고 싶은지 아는 사이”라며 “전에 같은 작품에 출연했기에 서로 더 편하게 연기를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16년 전 KBS 2TV ‘올드미스 다이어리’(‘올미다’)에 까칠한 성격의 PD로 출연해 큰 인기를 얻었던 그는 “열정과 패기가 가득했고, 알 수 없는 자신감과 강이 있었던 것 같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MBC ‘연애는 귀찮지만 외로운 건 싫어!’ 속 배우 지현우.

이어 “그때는 연기의 폭에 대한 고민도 크게 없었고, 내가 이해하는 대로 연기를 했다”며 “이제는 ‘과연 이게 맞는 걸까’라는 고민을 하다 보니 생각이 너무 많아졌다”며 “그때가 10이라면 지금은 100인 것 같다. 지금은 그 중간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자신을 고민이 깊어진 ‘17년 차 직장인’에 비유한 지현우는 최근 MBC TV ‘전지적 참견 시점’에 나와 절을 방문하는 모습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예전에 뮤지컬을 하면서 무대 연기와 스크린 연기 사이의 간극을 극복하기가 어려워 슬럼프가 온 적이 있어요. 그때 템플 스타이를 한

번 다녀왔는데 마음이 되게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마음이 불안하면 절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편안함”을 선호하는 그는 앞으로 하고 싶은 작품에 대해서도 “영화 ‘어바웃 타임’처럼 편안하게 보면서 웃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되 시청자에게 전달할 메시지도 있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제가 항상 일할 때 느끼는 거지만 ‘덜컹덜컹하지 않는 배우’, ‘덜덜덜덜덜덜 거리지 않는 배우’로 편안하게 다가가고 싶어요. 시청자들에게 지현우가 아닌 제가 맡은 역할 그 자체로 보이는 게 배우로서의 가장 큰 목표예요.” /연합뉴스

“당신의 미소를 기억해요” 설리 1주기 추모 이어져



가수 겸 배우 고(故) 설리의 1주기인 14일 서울 지하 철 광화문역에서 시민이 추모 광고를 촬영하고 있다.

가수 설리가 세상을 떠난 지 꼭 1년이 된 지난 14일 가족을 비롯해 소속사, 동료 연예인, 팬들의 추모가 이어졌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설리 소셜미디어에 환하게 웃는 설리의 사진을 게재하고 영어로 “당신의 미소를 기억한다”고 썼다.

설리의 친오빠는 “오랜만에 불 생각하니 기분이 좋다. 오빠가 더 자주 가야 하는데 미안하다”며 “화나고 슬프다. 가족들은 다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글을 올렸다.

배우 김선아는 설리 묘소에서 찍은 사진을 소셜 미디어에 올린 뒤 “단 한 순간도 하루도 잊고 지낸 적 없다”며 애도했다. 그는 설리가 세상을 떠나게 되며 남겨진 반려묘 블린을 입양해 키우고 있다.

팬들은 설리의 소셜미디어에 댓글을 남기며 그리운 마음을 전했다.

이날 광화문역에는 설리를 추모하는 광고판이 걸리기도 했다. 일부 팬은 이곳에 애도 메시지를 남겼다. 2005년 아역 배우로 데뷔한 설리는 4년 뒤 걸그룹 에프엑스 멤버로 가수 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일부 누리꾼이 그의 사생활을 비난하는 악성 댓글과 게시물을 올려 심적으로 고통받았고, 지난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연합뉴스

송창식 명곡·강수지 히트곡 리메이크 ‘눈길’

재즈 디바 말로, 22곡 수록 ‘송창식 송복’ 발매
전미도, 강수지 노래 2020년 감각 다시 불러

재즈 디바 말로가 ‘가요의 전설’ 송창식의 곡들을 재즈로 재해석한 앨범을 내었고 1990년대 강수지의 히트곡 ‘보라빛 향기’를 배우 전미도가 2020년 감각으로 재해석해 부르는 등 눈길을 끈다.

먼저 소속사 JNH뮤직에 따르면 말로는 15일 ‘송창식 송복’을 발매했다. 한국 최초의 송창식 헌정 앨범이자, 말로로서는 6집 ‘겨울, 그리고 봄’(2014) 이후 만 6년 만의 정규작이다.

‘송창식 송복’은 22곡이 수록된 더블 앨범으로, 전곡을 말로가 편곡했다. 송창식의 곡들은 가요의 전형적 작법에서 벗어난 파격적인 것이 많아 자유로운 음악 형식의 재즈와 잘 맞았다는 설명이다.

JNH뮤직은 “당초 한 장의 앨범으로 기획했으나, 송창식의 방대한 음악 세계를 담기엔 한 장으로 부족했다”고 전했다.

특히 노래의 주인공 송창식이 직접 피쳐링으로 참여한 대목이 눈길을 끈다. 그는 자신의 대표적 연가 ‘우리는’을 말로와 함께 불렀다. 그가 공식적인 녹음을 한 것은 1986년 발표한 ‘86 송창식’ 앨범이

후 처음이다.

15일 윤상 소속사 오드아이엔씨에 따르면 전미도가 리메이크한 ‘보라빛 향기’가 이날 오후 6시 공개됐다. 편곡에는 원곡 작곡가 윤상이 직접 참여했다.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OST와 다양한 뮤지컬 작품을 통해 가창력을 보여준 전미도는 이번 ‘보라빛 향기’에서 자신만의 음색으로 원곡이 가진 설렘을 담백하게 표현했다.

윤상이 이끄는 프로듀싱 팀 원피스(1piece)는 원곡의 감성을 감각적이고 세련된 사운드로 재해석했다. 오드아이엔씨 측은 “원곡의 작곡가 윤상이 직접 편곡과 프로듀싱에 참여한 만큼 노래의 오리지널리티를 고스란히 살린다”고 소개했다.

‘보라빛 향기’는 1990년 발표된 강수지의 데뷔곡으로, 당시 신인 작곡가였던 윤상이 작곡하고 강수지가 직접 작사했다. 당시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강수지를 톱스타로 만들었고, 현재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는다.

이번 리메이크 버전은 전미도가 모델로 출연한 페르비즈 광고에 사용되며 관심을 끌어 정식 음원 발매가 성사됐다.

더블 타이틀곡은 화려한 스윙 곡으로 변신한 ‘피리 부는 사나



이’와, 플라멩코와 탱고의 어법을 빌려온 ‘왜 불러’다. ‘고래 사냥’은 록, 블루스 등이 결합한 실험적 사운드로, ‘20년 전쯤에’는 고즈넉한 쿠반(Cuban) 사운드로 재탄생했다.

말로는 ‘재즈의 한국화’를 음악적 화두로 삼고 한국 대중음악의 대표적 유산을 재즈로 재해석하는 작업을 꾸준히 해 왔다.

지난 2010년 전통 가요를 재즈로 새롭게 해석한 ‘동백 가가시’ 앨범으로 주목받았고 2012년에는 배호의 노래를 다시 부른 ‘말로 싱크 배호’를 선보였다. /연합뉴스

‘가짜 사나이’ 이근 ‘두 달 천하’ 방송사들 편집·삭제 잇따라

유튜브 콘텐츠 ‘가짜사나이’ 로스타입에 오른 예 비역 대우 이근 씨의 TV 점령기가 두 달을 채우지 못하고 끝날 분위기다.

‘가짜사나이’ 1기(7월 9일-8월 6일)에서 해군 특수전전단 등 남다른 군 이력을 자랑하는 교관으로 등장해 ‘인성에 문제 있어?’, ‘○○는 개인주의야’ 같은 유행어까지 탄생시킨 이 씨는 예능가 입장에서 분명히 매력적인 인물이었다.

이 씨의 인기가 급증하자 방송사들은 지상파와 비지상파 구분 없이 모시기에 나섰다. 이 씨는 SBS TV ‘집사부일체’와 웹예능 ‘제시의 쇼터뷰’, MBC TV ‘라디오스타’, JTBC ‘장르만 코미디’ 등에 출연해 화제가 됐고, 디스커버리 채널 코리아 ‘서바이블’과 KBS 1TV ‘재난탈출 생존왕’에도 합류했다.

그러나 이 씨가 기성 플랫폼으로 진출한 지 두 달도 채우지 못하고 각종 논란으로 활동이 어렵게 되면서 방송사들은 예고편부터 분방송까지 편집하거나 몽땅 삭제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다. /연합뉴스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국수나무 광주용봉점 (비엔날레) 북구 용봉동 1091-4(M-타워 KB국민은행건물) 모든 메뉴 포장 및 배달 가능 직접 전화 및 배달앱 주문(배달의민족, 오기요) ☎ 062)526-5475, 010-8621-5959	남도철학원 북구 천변우로 79번길 87(임동) 수강생 수시모집! 사주, 작명, 출산, 태일 명리비전으로 수강생 개인지도 ☎ 062)522-9653, 010-8645-2254	법무사 김윤희사무소 목포시 정의로 26-4 범초하우스 3층 개인회생, 파산면책, 가압류, 가처분, 민사소송 강제집행, 채권추심, 부동산등기, 선박등기 법인등기, 상업등기, 신탁등기, 공탁 ☎ 061)284-3005, 010-9477-4872	필스제화 동구 산수동 553-73(산수5거리 옛골다리골) 구두수선 납화·여화창 굵같이 기방지퍼수선·염색·공택 ☎ 010-4755-9294	법무사 이영석사무소 동구 방실로 16-1(지산동) 부동산등기, 매매설계, 상속, 증여 등 상담 등기 회사설립, 임원변경 등 행사, 고소장, 항고장 신청 각종 가압류, 가처분, 경매, 공매입찰기타 법률상담 ☎ 062)226-7220, 010-3666-7220	평화의자소파 북구 운암동 794-13(대창초등학교 옆) 가정용, 영업용 불박이, 료스파, 압송제작 천길기 리폼전문 각종 소파 천길기 수리 및 제작 전문공방 ☎ 062)371-2110, 010-9404-3571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평화시장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태일, 개인지도 함. ☎ 062)224-7687, 010-2611-7687	명품옷수선전문점 나주시 중앙로 63(나주교회건너편) 남녀의류수선, 각종 명품 옷수선 기능사 자격증 소유자 친절 신용 본위 ☎ 010-2474-1457	보광세탁소 동구 지산1동 동명로 73-2(구 농장다리앞) 각종 의류세탁, 양복·양장 각종 의류 수선전문업소 ☎ 062)227-6815, 010-6681-5412	응추해신삼계탕 북구 저불로 93(용봉동 3차현대아파트 뒷편) 각종 삼계탕 전문 식당 각종 모임 환영, 연회석 완비 깨끗하고 조용한 분위기 친절·신용·본위 ☎ 062)523-1003, 010-5355-0867	하나부동산사무소 동구 계림동 254-4번지 주택·상가·토지·공공부지·임야 전문 각종 부동산 매매 상담, 신용 본위 ☎ 062)233-5155, 010-3615-5155	석당화랑 동구 궁동 예술의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 062)222-3118
고전방 동구 궁동 34-4(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 062)224-4869	약초당건강원 동구 산수동 557-33(산수시장동) 인삼·별곡·홍삼·생약초즙·봉어즙·장어즙 닭발즙·취즙·포도즙 각종 고춧고춧다. ☎ 062)224-9559, 010-3617-9779	신신예술의집 동구 궁동 예술의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 062)222-1936	새서림 떡방앗간 북구 임동 서림초등학교 정문 참기름, 고추방아, 떡주문일체 ☎ 062)526-4629, 010-5474-4629	머리해요(미용실) 북구 용봉동 현대아파트 1차암 개업할인 이벤트 컷트 8,000원 염색 20,000원 펌 25,000원 크리닉 50,000원 셋팅 펌 50,000원 매직 50,000원 ☎ 062)511-2337, 010-6886-3171	박당화랑 동구 궁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한승 ☎ 062)222-6866